



12면

장수 탐동마을 사찰터에서 후백제 연관추정 '귀면와' 출토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국내 농기계산업 메카 전북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예타대상사업 선정

국내 농기계 실증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27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예타 신청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거쳐 기획보고서를 수립하고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와 함께 사업추진의 당위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대응을 통해 2분기 최종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4년간 1,2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에 약 100ha 규모로, 농기계 실증을 위한 연구센터(5ha)와 다양한 환경의 농기계 성능시험이 가능한 테스트부지(95ha)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계 농기계 시장은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내 농기계 업체는 세계 시장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은 국내 완성형 농기계 메인저 기업 중 2개사가 위치하고 있고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을 비롯한 농촌진흥청 등 기술개발을 위한

농업관련 국가기관 등 농기계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국가 농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전북 지역의 장점을 살려 새만금 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테스트 부지를 활용한 세계적인 수준의 농기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기공 제조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메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조성되면 생산유발 2,287억원, 부가가치 유발 768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357명 규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실증단지 확보로 농기계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통해 전 북의 핵심 산업의 다각화 및 새만금지역의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첨단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만큼 부처 및 정치권과 협업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의 경제회복을 위해 농기계산업을 전북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산업혁신에 발맞춰 미래형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 기반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전주매일

## 도내 예식장 '거리두기 2단계' 동참

### 식사보다 답례품, 종사자·방문객 마스크 착용 등 전북도, 35곳 수시 현장점검·방역수칙 준수 지도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방지를 위해 도내 전체 예식장(35개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시 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비부부와 결혼예식 업체들은 이미 예약된 예식에 대해 연기하거나 인원을 축소 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로 혼란은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부분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 이동을 하는 접촉이 없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주말 예식장 현장점검을 마친 도 관계자는 "도내 대다수의 예식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신랑 신부를 제외한 결혼식장 종사자·방문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군산시가 도내에서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군산 한원컨벤션웨딩홀은 뷔페 제공을 안하고 답례품으로 대체하고 있고 예식장 출입구에서 명부를 작성,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예식 현장을 확인하여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의회, 섬진강·용담댐 피해 원인은... "수공의 방류 실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의원)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 전북교육청 "부패 차단·갑질관행 근절"

### 계약업무 제도 개선방안 마련... 청렴 상위권 재도약 올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계약업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전북교육 청렴도 인식 제고를 위한 계약업무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 분야에서의 청렴 역량을 강화해 전북교육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이끌고 청렴 상위권 우수기관으로

제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비대면 계약 확대·추진 △청렴교육 및 청렴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계약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발주부서(계약담당자) 계약 체결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 업무처

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계약 추진과정 공개 등을 추진한다.

또 계약업체의 기관 방문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대면 행정 차단을 위한 비대면 계약 확대,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을 활용한 계약업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계약담당자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및 청렴 컨설팅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기관 계약담당자를 중심으로 생강향 물품계약 청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불공정한 계약사례나 현장의견을 수렴, 개선과제

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계약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업무 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면서 "표준화된 서식 제공으로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계약과정 공개로 계약업체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신고 연중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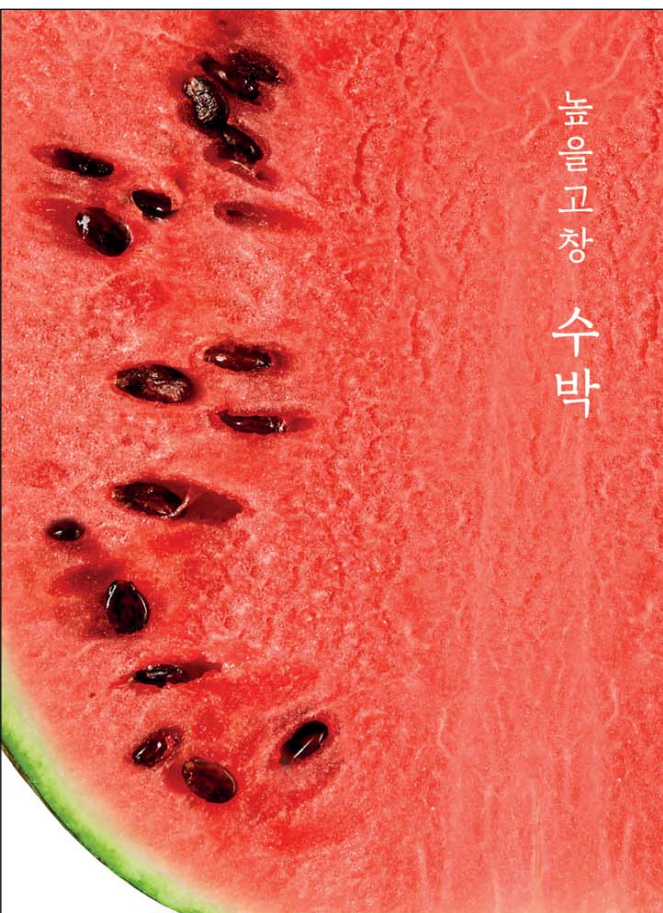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행 문화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갑질반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로 주요 신고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 행세, 고의 체중

조절, 청력장애 위장 등이며, 고아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속인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또는 전화(080-070-9090, 063-281-3306)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윤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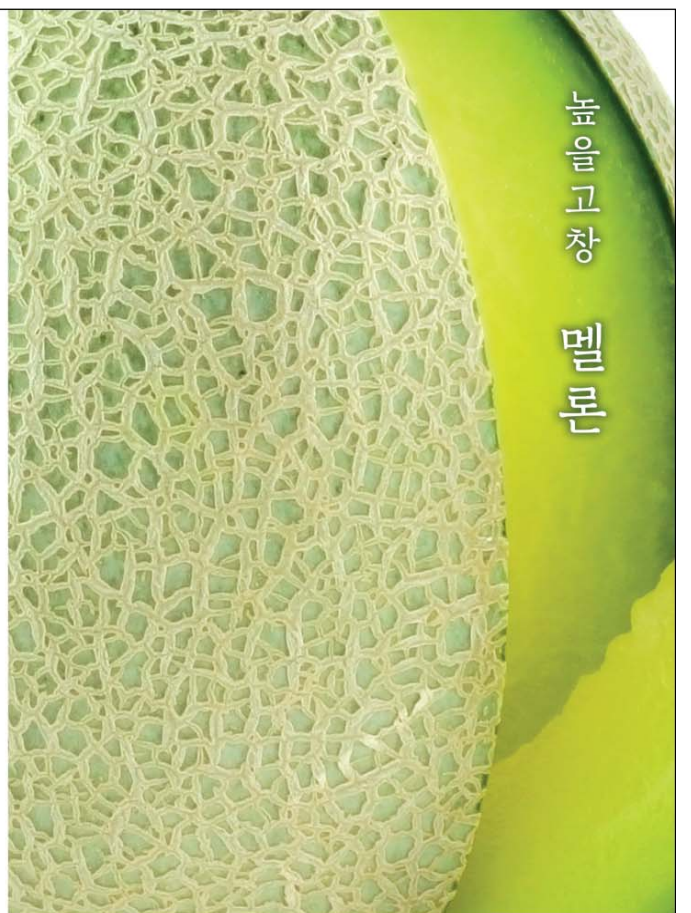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높을고창 수박



높을고창 복분자



높을고창 멜론

높을고창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